

새해 첫 달 45.1조원 재정집행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중

- 기재부 2차관, 제4차 관계부처 합동 「재정집행 점검회의」 개최하여 1월말 신속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집행 가속화를 당부
- 사업 착수시기 조정을 통해 추진일정을 작년보다 일주일 이상 앞당겨 온누리상품권 등 민생활력제고·경기진작 사업의 집행률과 체감도 제고
- 국민들이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에 대한 맞춤형 홍보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추진

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2.13.(목) 16: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관계부처 합동 「재정집행 점검회의」를 주재하여 '25년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, '25년 민생·경기진작 사업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.

* 참석부처 : 행안부, 교육부, 복지부, 국토부, 중기부, 산업부, 과기정통부, 환경부 등

김 차관은 “올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역대 최대인 398.4조원*으로 설정하여 관리 중”이라고 언급하며, “회계연도 개시 첫날(1.2일) 역대 최대 규모의 민생사업을 집행(3,300억원)하는 등 1월 한 달 동안 총 45조원을 집행**하였고, 일평균 집행액(2.5조원)도 작년(2.1조원)보다 대폭 증가하는 등 원활한 집행흐름을 보이고 있다.”고 밝혔다.

* 재정 358.0조원, 공공기관 투자 37.6조원, 민간투자 2.8조원

** ('25.1월) 집행액 45.1조원 <연간 계획 대비 8.0%> ('24.1월) 집행액 47.0 <8.4%>

특히, “온누리상품권과 같이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은 착수시기를 앞당김으로써 1월 집행실적이 전년 대비 5배 이상 증가하였다”고 언급하였다.

* 온누리상품권 발행사업 1월 집행률 : ('24) 2.7% ('25) 13.3%

또한 설 연휴가 끝난 2월부터는 집행을 더욱 가속화하여 민생 회복을 조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, “핵심 민생 활력제고·경기진작 사업은 각 부처에서 최우선으로 집행해 줄 것”을 강조하였다.

마지막으로 김 차관은 “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수혜자별 특성에 맞게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맞춤형 홍보도 진행해 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
총괄	기획재정부 재정지출관리과	책임자	과 장	정석철 (044-215-5330)
		담당자	사무관	송현정 (hjsong123@korea.kr)
			사무관	배민우 (bmw0308@korea.kr)

